

격해지는 변동성 장세... 전문가 “리스크 완화 무게뉘야”

중동불안에 코스피 급등락 반복
증권가, 변동성 국면 지속 전망
“실적 중심 선별대응 필요 시점”

#개인 투자자 직장인 박모(30)씨는 30일 오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하루종일 고민에 빠졌다. 20만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어느새 '17만원전자'(주가 17만원)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장기 호황국면이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중동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씨와 같은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가 어디로 될까.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주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520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5.18% 급락하며 5156선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3.02% 하락한 1107.05로 마감했다.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에 거래를 마치며 외국인 수급 부담을 키웠다.

이날 증시는 흥해 봉쇄 우려 등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

압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수도 사나를 접수하고 2015년부터 7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온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편을 들어 흥해 향로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5100~5900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이란 간 협상 과정, (내달 1일 나을)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한국 3월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 구글 테보퀀트발 반도체주 주가

불안 완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소 장세’ 예상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경우 하락 구간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의 중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도 가능하다”며 “리스크 확대보다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둘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는 선행 PER 8배 수준의 디밸류 구간에 진입했다”며 “2차 변동성 구간 역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유동성·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환경”이라며 4월 증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2분기 증시를 ‘멀티플 장세’가 아닌 ‘이익 장세’로 규정하며

실적 중심의 선별 대응을 강조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가늠 변수도 명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PMI)와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 제조업 확장 국면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출 환경 지속성을 가능할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노동시장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역시 변수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구글 ‘테보퀀트(거의 데이터의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6분의 1로 줄이는 압축 기술)’ 이슈로 흔들린 반도체주 흐름과 다음달 7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도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나 연구원은 “테보퀀트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융위, 상장사 자사주 공시규제 대폭 강화

보유·처리·이행현황 연 2회 공시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수단 기대”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인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 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 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약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로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인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보통주 주당 최소 배당금 1600원 유지”

자본 효율화 통해 주주환원 지속 확대

한양증권이 지난 27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신규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27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을 열고, 신규 CI를 선보이는 한편 향후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양증권의 새 CI는 ‘HY’ 심볼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한양증권 로고 타입은 브랜드 자산을 고려해 유지했다. 70년의 역사와 대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온 경영 전략, 성장 방향성을 함께 반영했다.

한양증권은 신규 CI 선포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도 공개했다. 보통주 주당 최소 배당금 1600원 또는 배당성향 30%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 효율화를 통해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지속



한양증권이 27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을 열고 향후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양증권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70년 금융시장의 파고를 이겨내고 우뚝 선 한양증권은 이제 미래 70년 성장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수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강한 중형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쟁 리스크에 공매도 급증... 순보유 잔고 16조 돌파

이달 8180억 증가... 현대차 1.7조 최고

이란 영토 내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전 우려가 커지자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16조97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6조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는 8180억원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30%에서 0.35%로 커졌다.

25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현대차로 1조7550억원이다. 이어 한미반도체(1조5740억원), 미래에셋증권(8270억원), 포스코퓨처엠(6640억원), 한화시스템(4410억원) 순이

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값은 투자 기법이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통상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 코스피는 9.64% 내렸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진안군 ‘행복뚝딱 의료봉사’ 성료

어르신 대상 의약품·기념품 전달

KB증권은 지난 29일 전라북도 진안군을 찾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뚝딱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뚝딱 의료봉사’는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의료가 닿지 않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포용금융 실천

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KB증권 직원과 ‘열린사회’ 의료진 등 35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스포츠공감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르신 14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정형외과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치료를 받으신 어르신을 위해 상비약, 영양제 등 간단한 의약품과 기념품도 함께 전달했다.

/신하은 기자